

특차전형과 복수지원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 순 영

경희대 의학과 교수, 교무처장

1. 머리말

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입시제도 운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면 학생선발을 여하히 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의 사명인 동시에 대학의 지상과제인 셈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제도는 그 동안 많은 탈바꿈을 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바른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의식과 함께 비판의식 또한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94학년도에 실시한 입시제도도 사회적 변천추이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학생, 학부모, 대학사회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상화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입시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금의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은 수요공급적 차원에서 과수요현상을 빚고 있으며 병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학 지향주의적 사회속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입시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야말로 교육기능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교육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교육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이 국제화,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다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풍토의 상황인식 아래 필자는 새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을 다룬다기보다는 부분적이거나 94학년도에 새롭게 시도되었던 특차전형과 복수지원제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과 보완대책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특차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수험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변별력있게 가려내어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관계로 대학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선발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94학년도에 치러진 특차전형은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수험생이나 대학으로 하여금 선택기회의 확대와 우수학생을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특차전형은 그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하고 특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차전형은 학생선발의 특징적 의미 부여나 특색있는 학생선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전형과 그 유형이 대별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전형상의 혼란과 수험생이나 일선학교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둘째로 특차전형은 수험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험능력시험 고득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으로서는 우수학생 확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기회박탈의 의미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셋째로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생선발권 확대라는 취지의 대학별고사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을 대학이 독자적으로 자체평가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다양한 학생선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제한적 특차전형방식은 오히려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로 시행방법상의 문제이다. 이번에 실시된 특차전형 시행일정을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능력시험 고득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경우도 있었으며, 시행결과는 일부 인기학과에만 집중지원하는 반면 비인기학과는 미달현상이 발생하여 입시관리상의 혼란만 가중되었다. 또한 전형자료 환용면에서는 수능성적표 징구를 보안상의 이유로 원서접수시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수험생의 수험능력시험 성적결과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대학으로 통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형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입시관리상의 엄정성과 사회적 인식의 결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대학으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평가자료 자체를 대학에서 담보해내지 못하고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야 하며 응시자격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원서접수시에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대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행 방법상의 문제는 사회적 인식변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나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2) 개선방안

① 특차전형에서 학생선발방법은 다양화되어야 한다.

특차전형의 학생선발은 특별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화이다. 학생선발이 자율화되어야만 대학의 독자적 평가방법에 따른 특색있는 전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각 대학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학생 선발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특차전형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다양한 선발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선발유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행 대학의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극복방안 차원에서 그 유형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의 우수학생 확보라는 측면과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우수한 학생을 인정하면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발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 몇 가지 방법을 예로 든다면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방법, 이미 일부 학교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서, 벽지 근무자 자녀, 선행자에 대한 추천자, 극빈자 자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류확대와 연관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대학이 자율화 된다면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특성화한 대학은 그 대학에 맞는 특정 고등학교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허용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교육의 학문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특차전형은 대학의 특성과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차전형은 대학의 특성과 특징이 심분 발휘되도록 그 특색을 살려야 한다. 특차전형에서 일반전형과 같이 성적 우수학생만을 선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건학정신과 창학이념이 있을 것이며 설립자의 뜻이 담겨져 있게 마련이다. 각 대학들은 이러한 개교정신에 입각하여 대학교육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며 이러한 정신 속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선발방법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학의 특성과 각 영역별 또는 학과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교육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일거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차전형에 있어서만이라도 대학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짜여진 틀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없는 가운데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입시관리상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특차전형제도 운영상의 전형절차나 방법 역시 대학에서 입시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입시제도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학은 입시관리에만 따른 지나친 물적, 시간적, 인력적, 행정적 낭비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의 지나친 부담감으로 그 절차나 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대학의 교육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며 교육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입시가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이 자율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때 대학의 특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다.

3. 복수지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복수지원제는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94학년도에 실시한 복수지원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수험생에게 입시로부터의 부담감을 덜어 주었다는 점에서도 제도개선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복수지원의 운영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복수지원제가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복수지원제는 특정 지역의 대학들이 입시일정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부 대학들이 입시일정을 달리하여 복수지원의 의미가 다소나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지원제가 수험생 확보와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제도라면 왜 대학들이 전형일을 동

일하게 정하기를 희망하였는가에 대해 우리는 대학 편의주의로 매도하기보다는 깊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입시에서 입시일정을 달리한 대학들이 지원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입시관리상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계의 불신이 증폭되고 대학 입시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는 달리 교육외적 상황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때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보장이 없는 모험주의 또한 대학이 선택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또한 대학간 차별화가 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수험생이 특정 대학을 특성과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지원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복수지원제는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입시로부터의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권장할 만한 제도이다. 앞으로 복수지원제의 발전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화되고 특성화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이번에 실시되었던 복수지원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개선방안

① 복수지원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어야 한다.

금번 복수지원제는 대부분 대학들이 입시일정을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소 제한된 의미가 있었지만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무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입시일정을 달리한 대학들은 많은 허수지원자가 발생하였고 합격생들이 대거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추가 보충을 위해 일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수직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기 적성과는

관계없이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대학지원에서 수험생들이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복수지원을 허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95학년도의 복수지원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입시일정을 가, 나, 다 세 그룹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복수지원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벗어났던 지원자의 허수지원이나 미등록의 발생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3개 그룹보다는 오히려 2개 그룹으로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입시로 인한 혼란과 눈치차전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입시일정 선택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추첨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회적 공공성을 이유로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 입시일정 선택의 자율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추첨제로 입시일정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과 같이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지 못한 제도에서의 복수지원제 허용은 많은 낭비적 요소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학이 다같이 눈치를 보아야 하는 비교육적 현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첨제로 대학별 입시일자가 정해지게 될 경우, 대학의 서열화 같은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지원제의 부작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첨에 의한 입시일정 선택도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학의 이기적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대학의 입시 일정군에 따라 대학서열의 고착화 현상이 제구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② 등록금 환불제는 없어야 한다.

복수지원제 운영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등록금 환불이 아닌가 한다. 이번 복수지원제 실시로 각 대학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미등록자 충원과정의 등록금 환불소동

으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복수지원제가 아무리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길을 넓혀주는 제도라고 하지만 등록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주면서까지 선택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배려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의 고충은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등록행위는 일종의 계약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과 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나 일반상식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지금까지 시행된 입시제도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었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적 권위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대학의 권위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대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교육계 불신의 사회적 인식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선택을 특성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명도가 높은 대학과 인기학과를 선호하는 현실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보다 많이 넓혀준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비교육적 측면이 심화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으며 등록 후 타대학으로의 이동은 금지해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 주면서도 등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간 시험일자는 달리하여 복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등록일정은 같은 날로 정하여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합격하였다더라도 등록은 그 중에서 원하는 대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후에는 타대학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의 위상이나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믿는다.

③ 타 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미등록 결원 보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등록결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겠지만 타대학에 등록한 자를 보충한다는 것은 상대 대학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좋

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과 대학 간에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며 상호 대학 자존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이번에 실시된 결원보충 과정에서도 입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타대학으로 이동해 갔다가 하면 추가보충이 대학마다 연쇄적으로 발표되어 추가합격 등록자가 다시 등록금을 환불하여 이동해 가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과연 이러한 것이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조명되어야 한다. 복수지원제가 수험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혜택이 전 수험생에게 부여되지 못하고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들이 결원보충 과정에서 대학마다 환불소동을 빚었던 사실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지원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타대학 등록자를 결원보충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시행하여야 입시관리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다.

④ 복수지원제는 바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복수지원제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수지원제의 의미는 수험생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입시 부담감을 경감시켜줌과 아울러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르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재수생 누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선택의 길이 막혀 나오되지 않도록 대학의 문을 넓혀 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복수지원을 무제한적으로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현실 여건에 맞게 입시일정 조정에서부터 대학에서의 혼란방지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험생에게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과 학과를 자

기적성에 맞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며 대학은 대학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복수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수지원제의 바른 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바른 제도 수립에 노력하고 대학이 교육현장에서 복수지원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수험생들이 자기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대학을 바르게 선택하고자 할 때 복수지원제는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4. 맺는 말

대학의 입시제도는 아무리 제도수립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입시제도 중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던 특차전형과 복수지원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요건 충족의 미흡과 대학 학생선발에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뒤따라야만이 올바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고 특차전형과 복수지원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학생정원 조정에서부터 학사일정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자유로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겨주어야 한다. 학생선발에 따른 내신성적 반영비율과 반영방법, 수학능력 시험의 활용, 대학별 고사에 관한 모든 결과를 대학에 일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맡겨질 때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 특성에 의한 학생모집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학생선발의 다양성

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학은 지금 교육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현실 앞에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대학들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운영체계를 고집한다면 교육개방화 시대에 우리 교육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대학에서도 입시관리에 대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연중 계속적으로 입시에 관한 정책수립, 학생선발의 유형과 방법, 대학특성화에 따른 홍보전략 등 다양한 입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나름대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상실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할 때 교육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대학진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판단하고 자기의 갈 방향을 설정하면서 나의 적성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를 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대학은 나의 장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며 나의 특성과 적성이 일치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학문탐구와 자아성찰의 결실이 결과적으로 보장성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고 입시제도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나 학교, 수험생이나 학부모 다같이 합심 노력할 때 제도운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